

“실무자를 존중하고 배려한 수준 높은 행사”

글 김영곤 아산재단 복지사업팀 / 사진 송은지



아산재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이틀간 2018년 사회복지 협력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사업수행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 모습. 왼쪽부터 시상자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아산재단 이사)과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 금정희망의집 ·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의 대표자들.

유례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 하순,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알찬 교육과 기분 좋은 휴식이 함께하는 행사가 열렸다. 아산재단은 7월 26일부터 1박2일 동안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과 이룸센터에서 전국의 65개 사회복지 협력기관과 함께한 ‘2018년 아산재단 사회복지 협력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은 협력기관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해 워크숍과 소그룹 간담회, 컨퍼런스, 자문교수 컨설팅 등의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협력기관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매년 7월에 여는 협력기관 워크숍은 알찬 교육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행사다.

1977년부터 어려운 이웃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펼쳐온 아산재단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복지 대상을 발굴하며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복지 현장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회계교육을 받는 모습과, 특강하는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왼쪽부터).

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는 발달장애인과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회적 파급력이 있고 혁신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선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사회 임팩트 사업(발달장애 지원), 취약계층 자립,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농어촌 노인 복지·건강관리 통합지원 등의 4개 지원 부문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서울과 광주, 부산을 방문해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문별 사업내용·심사과정·선정 이후 활동 등 아산재단 사회복지사업을 전반적으로 알리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65개 협력기관에 31억 원 지원

2018년 공모사업에는 전국에서 347개 사회복지기관이 신청했다. 1~2차에 걸친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면접심사, 심사위원회 종합심사, 현장방문 확인 등 5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65개 협력기관을 선정하고 모두 31억 원을 지원했다.

먼저 연간 1억 원씩 최대 3년간의 지원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한 발달장애 지원사업은 '사회 임팩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업 성과와 파급력을 더욱 확산시키도록 했다. 3년 동안 아산재단의 장기 지원을 받은 협력기관들은 최종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모델과 교육방법 개발, 발달장애인 법적 후견 및 자산관리 모델 구축, 평생과정 설계중심의 성장 시스템 매뉴얼 보급, 발달장애인 예술인 양성 등의 자립 모델을 개발했으며, 2018년에는 총 23개의 연속사업기관이 선정돼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문화예술, 지역사회

통합, 취업지원 등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에 매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과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자립' 부문에는 15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현장 실무자 중심의 힐링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부문에는 12개 협력기관이 선정됐다.

이어서 빈곤·질병·고독과 소외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농어촌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노노케어 사업을 발전시켜 새롭게 시작하는 '농어촌 노인 복지·건강관리 통합지원' 사업은 경북과 전남, 강원, 제주 등 전국에 위치한 15개의 사회복지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보건소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 사회단체와 보건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문화여가 복지 프로그램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알찬 교육과 편안한 휴식

1박2일 동안 진행된 올해 워크숍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특강과 사업수행 우수기관 사례 공유, 네트워킹 활동, 지원분야별 세미나 등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7월 26일 오후 2시 아산재단 이사이자 사회복지 자문위원장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의 인사말에 이어 협력기관 지원증서 전달식으로 워크숍은 시작됐다. 이봉주 이사는 높은 경쟁률과 단계별 심사 과정을 뚫고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65개 협력기관에 축하 인사를 건네고,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재단의 설립취지에 걸맞게 재단과 선정기관이 파트너로 협력해서 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워크숍이 상호 소통



2017년 사업수행 우수기관으로는 ①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와 ②금정희망의집 ③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이 선정됐다. 3개 기관 대표자가 참석자들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모습.

과 협력관계 구축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특강 2개가 준비되었는데 먼저 이봉주 학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봉주 학장은 ‘사회복지사업과 콜렉티브 임팩트’를 주제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증가와 사회복지 생태계 변화에 발맞춰 사업 성과를 관리하고 파급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조직과의 협력 과정에서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봉주 학장은 “복잡한 주요 사회문제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은 없기 때문에 현재 사회에서는 집단적 파급력(Collective Impact)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공통 어젠다, 공유된 성과 측정 시스템, 상호보완적인 행동, 지속적인 의사소통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 사업 분야의 2년차 연속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기장장애인복지관의 노화정 팀장은 “농촌 지역의 도시공간 디자인 작가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언론사, 전시 기획업체 등과 지역공동체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 달성을 위한 기능성과 한계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봉주 학장님의 강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 향상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2017년 뛰어난 사업 수행과 성과 달성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금정희망의집,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우수기관의 사업 담당자들은 그동안의 사업 수행 경과와 성과, 시행착오와 극복 과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노하우를 공유했다.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의 김선경 팀장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아산재단의 사업지원단 등 외부의 슈퍼비전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명확한 역할 배분, 지속적인 사업 점검이 병행된다면 다른 기관들도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분야에서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새벗클립하우스의 여진 과장은 “지원증서와 우수기관 발표를 통해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사업을 충실히 진행해 내년 워크숍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잠깐의 휴식 후 두 번째 특강인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미옥 교수는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질적 평가’를 주제로 질적 평가의 개념과 종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들려주었다. 특히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사업성과 점검과 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양적 평가, 과정 평가 등의 평가 유형과 질적 평가의 새로운 활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김미옥 교수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사업 효과들은 언어와 그림, 문서, 관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질적 평가를 통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구적 접근,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사업 연구, 프로그램 개입 효과의 내면적 이해 등의 대상에서는 질적 연구 평가 방법이 더욱 유용하다”고 말했다.

영월군단기케어홈센터의 전금자 센터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성과 창출과 평가 방법인데 그동안 다소 어렵게만 느껴진 질적 평가 개념이 국내

대표 NGO들의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강 후 각자 배정된 글래드호텔 숙소에서 짐 정리와 간단한 휴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저녁 7시 30분부터 뷔페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튿날 진행할 조별 네트워킹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65개 기관의 실무자들은 유사 사업 및 지역 등을 고려해 9개 조로 편성됐는데 어느새 조원들과 친해져 다음 날 진행될 네트워킹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원분야별 세미나와 네트워킹

둘째 날에는 지원 분야별 세미나와 네트워킹 조별 활동, 공모 사업 회계 교육 등이 진행됐다. 먼저 오전 9시부터는 자문교수와 함께하는 지원 분야별 세미나가 열렸다. 아산재단은 원활한 사업 진행과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문교수단을 운영 중이다. 아산재단 사회복지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은 사업 부문별로 배정됐다. 사회임팩트 사업(발달장애) 분야에는 이봉주 학장 등 5명, 취약계층 자립과 공동체 네트워킹 지원 분야에는 김인숙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3명, 농어촌 노인 복지·건강관리 통합지원 분야에는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3명의 자문교수가 정해졌다. 65개 협력기관은 지원 분야별 세미나 시간을 통해 개별적으로 작성한 사업 목표와 평가 방법을 자문교수와 논의하고 더욱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사업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밀도서관의 이슬 사서는 “사업의 기본 뼈대는 사업 목표와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소 추상적이던 기존의 평가 방법이 자문교수의 조언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다”면서 “자문교수단 운영은 협력기관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과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아산재단만의 큰 강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참석자들이 기다리던 조별 활동을 진행했다. 6~8명으로 이루어진 9개 조는 아산재단에서 지원한 활동비를 사용해 서울 시내 관광지를 둘러보고 맛집 등을 방문하며 친목을 다졌다. 참가자 대부분은 “조별 활동을 통해 각 기관의 사업을 공유하고 서로의 고충도 털어놓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황지혜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같은 사업부문에 선정된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의견을 나누며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미옥 교수가 ‘질적 평가’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조언해주고 있다(위). 권중돈 교수(왼쪽 가운데)가 분야별 세미나에서 농어촌 노인 통합지원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을 조정하는 모습(아래).

오후 2시 30분부터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박지은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의 ‘공모사업 회계 교육’이 진행됐다. 회계 교육을 끝으로 1박2일간의 워크숍 일정은 마무리됐다.

이슬잎 마포애란원 사회복지사는 “수준 높은 특강과 지원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 향후 사업 방향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이번 워크숍의 소감을 전하면서 “서류 접수부터 단계별 심사과정을 거쳐 워크숍 행사까지 한결같이 사업 담당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준 아산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전국에서 모인 실무자들은 1박2일 동안 사회복지 전문가의 특강과 우수사업 사례 공유, 네트워킹 등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체험했다. 아산재단과 협력기관이 함께 성장하도록 알찬 교육과 편안한 휴식이 함께한 이번 워크숍이 2018년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